

Sumitomo, 칼라필터 4800만달러 투자

일본3사 노대통령 방일 맞춰 1억달러 투자 확정 ... 투자환경 개선돼야

2003년 6월7일 일본의 Sumitomo Chemical, Harison Toshiba Lighting, Mitytoyo 등 3사가 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맞춰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.

노무현 대통령 방일에 맞춰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목적 포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. 또 일본 기업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위상을 세워줘 방일에 대한 성과를 심어줄 수 있을 뿐더러 이번 기회에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고 있는 분위기이다.

Sumitomo Chemical은 이미 투자한 포승공장에 TFT-LCD 칼라필터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4800만달러를 투자한다.

Harison Toshiba Lighting은 충북 오창단지 소재 7000여평의 부지에 TFT-LCD용 냉음극 형광등(Back Light) 공장을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 4월 가동을 목표로 5000만달러를 투자한다. 또 Mitytoyo는 부산 녹산공단의 450평에 200만달러 규모로 길이(Length)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.

Sumitomo의 국내법인인 동우STI의 지분을 5% 확보하고 있는 동우화인켐 관계자에 따르면,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는 원스톱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KOTRA(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)에 등록된 후에도 여거저기에 준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비효율적 체제로 이루어져 투자가 어려운 처지이다.

동우화인켐은 일본 Sumitomo Chemical이 100% 출자한 일본계 화학기업으로 과거에는 지분비율이 동양제철화학 50%, Sumitomo 40%, Itochu 10%로 구성돼 있었지만 2002년 11월 Sumitomo가 주식을 100% 확보한 바 있다. <김선환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6/13>